

동학 발상지 '고창 무장봉기' 모든 교과서 수록

126년만에... 고창 동학혁명 성지화 사업 탄력

무장기포지·전봉준생가터 국가사적 등재 등 추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 무장봉기가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됐다. 무장봉기 126년 만이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부터 사용하는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 교과서(2019년 11월 27일 검정) 전체에서 고창 무장봉기(무장기포)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교과서는 무장봉기(무장기포)에 대해 '1894년 음력 3월 20일(양력 4월 25일) 고부 봉기에 실패한 전봉준이 순화중과 힘을 합해 고창 무장에서 일으킨 대규모의 농민 봉기'로 기술했다. 미래엔 등 일부 교과서에는 '무장포고문'과 '4대 강

령' 등을 함께 수록했다.

고창 무장기포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동학세력을 구축한 무장지역의 집주 손화중과 합류한 고창 출신 전봉준 등이 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

특히 무장기포는 혁명의 이념과 지표인 '무장포고문'과 농민군 행동강령인 '4대 강령'을 정립 발표, 농민혁명의 틀을 갖춘 것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 무장봉기가 수록된 한국사 교과서.

모 향쟁으로의 변화하고, 반외세 반봉건 민족민중향쟁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군은 매년 전봉준장군 탄생 기념제, 무장기포기념제와 녹두대상 시상, 학살대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평가와 동학 선열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무장기포에 대한 한국사 교과서의 수록,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무장기포지·전봉준장군 생가터 국가사적 등재 등이 대표적인 선양 활동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국사 교과서 수록을 계기로 고창 무장기포지와 전봉준장군 생가터의 문화재 등재,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등 선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동학 의향정신을 살린 자랑스런 군민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5~6월 농촌일손부족 돕기 읍·면·동·농협에 추진단 운영

남원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운영한다. (사진)

남원시는 농번기인 5-6월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에 설치하고 지역 내 기관·단체와 함께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원시는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농가의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과수농가 돕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과수농가는 과일 수거와 봉지 씌우기 등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발길이 끊기면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시청과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추진단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된다.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할 봉사자도 추진단을 통해 접수하면 봉사장소를 연결해 준다.

남원시는 과일 수거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농업기술센터·농협 관계자 등 전문인력들이 작업을 지도할 계획이다. 일손지원 기관·단체를 행사성 위주의 대규모 인력 동원보다 10~20명 단위로 편성해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화하면 달려가는' 행복 콜버스 익산시, 49개 마을로 확대 운행

익산시는 '전화하면 달려가는' 행복 콜버스(사진)를 다음 달 6일부터 오산면 49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 콜버스는 15인승 미니버스로, 각 마을에서 오산면 행복복지센터를 거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전화로 예약하면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방식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요금은 300원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8월 여산면에 행복 콜버스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분기 이용 건수가 3800여건에 달할 만큼 반응이 좋은 편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VR·AR로 정읍 관광·경제 활성화 선도한다

오는 10월 VR·AR 체험박람회

게임문화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시·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협약

정읍시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 총 40억원을 투입해 VR·AR 체험장을 비롯한 15종 28개 놀이시설과 복합스포츠시설을 조성 중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를 연데 이어 지난 22일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2020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 및 '전북 게임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게임·문화·축제 융합시장 개척에 나선다.

양 기관은 박람회를 운영할 대행사 선정 등 협의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VR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환경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AR은 현실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VR과 AR은 게임·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성장과 산업 간 융합으로 의료·교육·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를 거쳐 10월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읍시와 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VR·AR 콘텐츠 전시와 체험, 5G 실감 콘텐츠 체험 등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젊은 층의 관심을 높여 정읍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2019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를 개최해 VR, AR, MR 등 17개 첨단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였다.

또 정읍시 드래곤즈컵 철권 토너먼트와 배틀그라운드 대회 등 'e-스포츠 전국대회'를 유치했



정읍시와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2020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 및 '전북 게임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 제공)

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읍뿐만 아니라 전북 관광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정읍시를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코로나 위기 군산 문화·예술계 '콘텐츠팩토리' 구축 창업 유도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계를 '콘텐츠 팩토리'로 구축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인 옛 수협창고(금암동 소재·사진)를 리모델링해 콘텐츠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인 '콘텐츠 팩토리'를 구축했다.

이 곳은 창작·예비창업자들의 사업 공간으로, 군산시는 지역 특화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2년간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

차년도 사업인 리모델링 및 장비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은 완료됐으며, 현재 콘텐츠 창업기업 6개사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 우수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사업 상용화를 위한 성장 레밸업 지원,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우수 아이템 발굴, 콘텐츠 제작 등 6개 사업을 진행한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